

Estelle Tcha

CYCLIC
Y
C
L
I
C
Y
L
I
C

CYCLICALITY

윤희

Estelle Tcha

For SY, the mother of my universe, MJ, the fuel of my world, Alwyn, the strongest fate of all, and Koshu, energy itself.

Table of Contents

1. Artist Critique

2. CYCLICALITY

CYCLICALITY exists in two parts:

Part I: *eee Universe*, the sphere you and I physically and mentally exist in, where we indulge in physicality and the limits of our ever-expanding imaginations, and

Part II: *Cyclicality*, the realm that umbrellas the phenomenon of life and beyond.

Part I: *eee universe*

eee universe

smoking zodiacs

Art framed by function.™

Part II: *Cyclicality*

Cyclicality of Energy

Cyclicality of Life

Fate

Self Portraits (25)

3. Artist Profile

Estelle Tcha (차경채) 개인전 <윤회: CYCLICALITY>

우리는 모두 스탠차stanza에 놓여 있다*

천수림 (아트저널리스트, 시각문화 비평가)

Estelle Tcha는 윤회와 인연, 환생과 염원,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하고,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고대 그리스로 흘러온 황도 12궁, 점성술 등에 관심을 두고 회화와, 웨어러블아트 작업을 전개해왔다. 이번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Estelle Tcha(차경채) 개인전 <윤회: CYCLICALITY>전에서 선보이는 <Cyclicalality of Energy / 기(氣)>연작과 <Cyclicalality of Life / 윤회(輪廻)(육마도)> 연작은 Estelle Tcha(차경채)라는 아티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과도 같은 작품이다.

처음과 끝이 분명치 않은 공간에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달려가는 듯한 말뚝과 촛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氣)연작과 흰색과 회색의 말들이 서로 겨안거나 다리가 서로 얽혀 있고, 마치 원무를 그리듯 하나의 물처럼 섞이는 <윤회(輪廻)(육마도)>에는 다양한 동작을 지닌 말이 등장한다.

어릴 적 서호주에서 자란 작가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고, 특히 호주의 너른 들판을 달리는 말(horse)에 큰 흥미를 지니고 있었다. 어릴 때 자주 말이 보고 싶어 부모님에게 보러가자고 졸랐다고 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달리는 말은 ‘아름답고’, 말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름’이 붙은 유일한 동물이다. 말의 조상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대략 5,000만 년 전의 일이다. 말은 인류와 함께 긴 시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야생성을 지니고 있다.

‘Cyclicalality of Energy / 기(氣)’에 등장하는 말들은 어쩌면 어릴적 어린 작가의 눈에 비쳤을 호주의 들판을 달리던 말들인지도 모른다. 화면은 푸른 초원을 달리는 재현된 말이 아니라 마치 신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흑색의 드로잉에 흰색, 혹은 회색 톤의 말들이다. 작가는 홀로 혹은 무리지어 다니는 말에서 ‘기’의 다스림을 보았다.

‘기’의 연작과 이란성 쌍둥이처럼 보이는 <Cyclicalality of Life / 윤회(輪廻)(육마도)> 연작은 ‘인간이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육마도는 말이 여섯 번 생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말은 작가가 백색과 흑색의 대조, 칠해지지 않은 캔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젯소(ghesso)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될 것이다. 보통 젯소는 벽화그리기의 밑바탕의 주재료로 쓰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겹 칠하고, 충분히 마르고 덧칠하면서 시작될 그림을 준비하는 행위다. 하지만 작가는 이 행위를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없음’과 ‘순환’의 이미지에 적합한 작업방식이라 판단했다.

전시장 윈도우에 설치된 <Self Portraits (25) / 자화상 (25)> 드로잉은 육마도와는 다르게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계열의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자아의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고 있다. ‘자화상’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저서 <행간>(자음과 모음)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용어인 ‘스탄차stanza’를 떠올리게 한다. 스탠차는 ‘시의 행과 행 사이의 감추어진 것’이자 ‘시의 거주자이자 피난처이며 모든 사유를 담을 수 있는 중심’을 의미한다. 같지만 다른 도상들의 집합체 사이에 놓여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윤회와 윤회 사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 행간과도 같다.

윤회설을 둘러싼 자아와 무아(無我)에 대한 유명한 대화가 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불교 경전인 <밀린다왕문경>에는 인도-그리스 왕국의 메난테르 1세와 승려 ‘나가세나Nagasena’가 등장해 이런 대화를 나눈다. 왕이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한다.

“나가세나는 편의상의 호칭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자기란 없으니까요”

19세기와 20세기 유럽 철학, 개인 정체성, 도덕 심리학, 죽음과 추모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패트릭 스톱스(Patrick Stokes) 호주 디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밀린다왕문경>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메난테르 왕은 어리둥절했지만, 사실 이는 ‘무아’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다. 자기 자신이 기껏해야 일종의 관습에 불과하다는 개념이다.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주어진 이름이나 선택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런 이름이 실질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패트릭 스톡스는 <뉴필라소퍼> 에세이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경전에서처럼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라고 했다. 작가의 또 다른 작품 <FATE / 인연(因緣)> 연작은 두 마리의 말들이 서로 마주보거나 포옹하거나 얽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연의 모습을 그렸다. <바라보는 인연>, <전율이 흐르는 인연>, <소울메이트 인연>, <특별한 인연>, <피할 수 없는 인연>,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윤희, 환생, 색즉시공 공즉시색, 인연 등 힌두교와 불교 등의 동양철학 외에도 서양의 ‘운명’ 을 접치는 점성술과 별자리도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예술과 패션을 결합한 ‘eee’ 라는 웨어러블 아트 브랜드를 런칭해 작업 중이다. 그녀가 이 브랜드를 통해 전개하는 스모킹 조디악 (smoking zodiacs) 시리즈는 ‘메멘토 모리’ 의 주제의식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웨어러블 아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열어본 옷장을 보면서 ‘기억’ 과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워낙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도 있었지만, 앤틱이나 빈티지 개념이 탄탄한 문화를 보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eee의 철학은 패션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데드스탁 (Deadstock: 더 이상 판매 할 수 없어 버려지는 재고품)을 업사이클링(Upcycling: 새로운 방법으로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아트 (Sustainable Arts)” 이다. eee는 액자 기능을 하는 자켓에 실제 미술작품(회화)을 부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재봉방법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윤희: CYCLICALITY>전에서도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하는 12개의 회화작품(smoking zodiacs series)으로 한 컬렉션을 볼 수 있다.

예술과 패션 사이의 경계는 오랫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웨어러블 아트는 1960~70년대 활동하는 아티스트 세대에서 시작되었지만, 밀레니얼 시대로 들어서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중에 커스터마이징(주문제작, 이용자가 사용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재킷 뒷면에 구멍을 만들고 그에 맞는 늘어지지 않은 캔버스 의 여백에 벨크로를 사용해 빈티지 조각을 ‘휴대용 프레임’ 으로 재단하여 재킷 뒷면의 그림을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옷은 새로운 캔버스이자, 갤러리 공간으로 기능한다.

작가는 이 작업이 마치 개개인 고유의 별자리가 있듯이 작품이 옷을 입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패스트 패션, 스트리트 패션으로 인해 과잉생산되는 이 시대에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와 입고 다닐 수도 있고, 원한다면 따로 떼어 액자처럼 벽에 걸 수도 있는 웨어러블 예술은 작가의 주관심사였던 ‘생존과 환생’ 이라는 기존 작업의 개념과도 궤를 같이 한다.

<smoking zodiacs> 그림엔 운명과 자아를 상징하는 각 별자리들이 각자의 행성(이것 역시 별이다)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smoking zodiacs>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고 속삭인다. 영속할 것 같은 지금을 되돌아보라고.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이다. 이와 같은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바니타스라는 정물화가 등장하면서 대유행한다. 삶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꽃이나 과일, 촛불과 모래시계, 인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해골 등이 등장한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오니아 바니타스(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즉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이 씌어있기도 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중반, 흑사병과 대기근이 지나가면서 유럽은 인구의 1/3가량을 잃었다. 이점이 17세기 초중반에 ‘메멘토 모리’ 가 유행한 배경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에게도 ‘메멘토 모리’ 는 여전히 유효하다.

작가의 <eee universe/eee 세계관>, <eee universe dwarf planet study/왜행성(矮行星)>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행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궁금해진다. 작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자각을 하는지, 도대체 우리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인지, 대체 우리는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묻는다.

*제목으로 쓴 스탠차stanz는 1200년대 아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행간’ 이라는 의미이자, ‘시 정수가 모이는 공간’ 으로도 여겨졌다. 행간은 현재 우리의 현재, 다른 세계,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전의 공간인 ‘현세’ 를 행간에 비유했다.

Estelle Tcha Solo Exhibition <CYCLICALITY> We are all within a Stanza

Surim Cheon (Art Journalist, Critic)

Estelle Tcha has developed paintings and wearable art works with interest in concepts like cyclicity, fate, and cultural developments with roots in the essence of human nature, such as astrology, of which origins date back to the Babylonian Empire, before flowing into Ancient Egypt, Ancient Greece, India, and Persia, and finally reaching global prevalence today. The <Cyclicity of Energy> quadriptych and the <Cyclicity of Life> series, presented at Estelle Tcha's solo exhibition <CYCLICALITY> at Soul Art Space, Busan, are entry points to the artist's own creative universe.

In <Cyclicity of Energy>, a herd of horses lope in a space lit by a singular candle where the beginning and end remain ambiguous. In <Cyclicity of Life>, white and gray horses embrace each other in various forms, intertwining fluidly like water as they dance in circular motion.

Growing up in Western Australia, the artist was always drawing, creating things, and especially intrigued with the horses running free in the vast planes of the Australian countryside. Tcha says she often persuaded her parents for riding lessons, or to merely go see them. According to Tcha, a galloping horse is "beautiful"; a horse is the only animal with a 'name' attached to each of its movements. Originating back to 50 million years ago on earth, horses have coexisted with humans for a long time, yet still maintain a wild streak.

The horses in <Cyclicity of Energy> may just be the horses running freely in the fields of Australia preserved in the artist's reservoir of memory from her childhood. Yet the horses in her work are not reproductions of the atypical horse on a green meadow that one would think of, but horses of various grayscale conjured by charcoal sketches that feel like they belong in mythology. In horses, both lone and in herds, Tcha saw a governance of energy. The dynamic <Cyclicity of Energy> quadriptych and the binate <Cyclicity of Life> series are asking the same questions on where humans come from and where they are going. The <Cyclicity of Life> shows a horse repeating life six times. The Buddhist teaching "Matter is void. All is vanity." is the essence behind Tcha's choice to limit her palette to the contrasting black and white, and to use gesso,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an unpainted canvas. Usually, gesso is used as the foundation for mural painting, applied in several layers from left to right with adequate drying time to prepare for a painting. From this inherent application method, Tcha saw gesso to be suited to depict the concepts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cyclicity".

Unlike these, the <Self Portraits (25)> series installed in the window space of the exhibition reveals various dimensions of the self through a diverse color palette of purples, yellows, blues and greens. The <Self Portraits (25)> series brings to mind the idea of "stanza" in Giorgio Agamben's book "Stanze". Agamben's "stanza" means "the hidden meaning between the lines of poetry", "the center where all thoughts can be contained as residents and shelters of the poetry". The present time, which lies between a collection of images that are the same but different, is reminiscent of a "stanza" drawn amidst two points between the reincarnation of two lives.

There is a famous conversation about self and no-self ("anatta") on the theory of reincarnation. Greek king Menander I of Bactria and senior monk Nagasena engage in a lively dialogue in Milinda Pañha, a Buddhist text which dates back to 2nd Century AD. When the king asked Nagasena what his name was, he responded that his name is "only a generally understood term, a practical designation".

Patrick Stokes, Associate Professor of Philosophy of Deakin University, Australia, who is interested in 19th and 20th century European philosophy, personal identity, moral psychology, death and remembrance, said:

"King Menander was puzzled, but in fact, what Nagasena said is a key Buddhist doctrine called the "no-self theory". It is a concept that one is only a type of custom at best. We call each other by a given name or a chosen name, but these names do not represent a substantive subject."

- Patrick Stokes. New Philosopher, p.17-12.

Patrick Stokes states in <New Philosopher> that the important thing is to not be obsessed with oneself, as taught in Buddhist scriptures. Another series of work by the artist, <FATE>, depicts a variety of relationships through pairs of horses intertwined with each other: facing each other, embracing each other. The series consists of works that describe these bonds, such as <SOULMATES>, <CONNECTED>, <ELECTRIC>, <SPECIAL>, <INEVITABLE>, <DEEP>.

In addition to Eastern philosophy and the thoughts of Hinduism and Buddhism, such as the cyclicity of all life, reincarnation, fate, and the teachings of "Matter is void. All is vanity.", Tcha also explores Western Philosophy, and customs and cultures that survived time such as astrology, which focuses on human affairs and roots strongly in human desire. Based on the latter, Tcha launched a brand called "eee" which combines art and fashion. The <smoking zodiacs> series, which she develops through the brand, reinterprets the theme "Memento Mori."

After the passing of her grandmother and sifting through her belongings and beloved closet, Tcha dwelled on the concepts of "memory" and "value". Tcha delved into wearable art during her time at Central Saint Martins,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ertainly, Tcha was inspired by the young artists that surrounded her, armed with raw, experimental spirit, but her interest in upcycling naturally grew as she saw the solid culture of vintage and antiques in London. eee's philosophy is "upcycling value" through sustainable arts; for instance, through collaboration with other brands, eee creates new value by upcycling deadstock, a cause of waste and pollution every year in the fashion world. eee has developed a design and sewing method that can attach real art works (painting) to a jacket which then functions as a frame. The third collection of the <smoking zodiacs> series, 12 paintings each with one of the 12 zodiac signs framed in tailored vintage Dior, can be viewed in the show <CYCLICALITY>.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fashion have long influenced each other. Wearable art began in the 1960s and 1970s, but it began to attract new attention as it entered the millennial era. Customization (made-to-order, changing functions to users' preferences and setting up hardware or software accordingly) is an important factor in Tcha's practice with eee. A hole is made in the back of the jacket, and Velcro is lined to both the margin of the canvas and the cut vintage piece, making the garment a "portable frame" as the painting on the back of the jacket can be removed and replaced. This allows the garment to function as both a new canvas and a gallery space.

Just as individual zodiac sign is unique to the person assigned to it, the artist believes that this particular work is a way to both reveal and empower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wears it. In this era of overproduction due to fast fashion and street fashion, her work, both hand-made handicraft and wearable art, which can be both worn when desired and hung on the wall like a framed artwork, orbits in the same plane with the concepts of "longevity" and "rebirth" of her other works.

In the <smoking zodiacs> series each zodiac sign, symbolizing both self and fate, sits on its ruling planet (also a star) and has a cigarette. The smoking zodiacs constantly whisper to us, "remember you will die". To look back on the present that seems will last forever. Memento Mori is Latin for "Remember You Will Die". Such paintings were all the rage in the Netherlands in the 17th century with the emergence of a still life painting style called "Vanitas". These paintings depicted flowers, fruits, hourglasses and candles, which remind us of the ephemerality of life, and skulls which directly symbolizes human mortality. The phrase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meaning "earthly life is ultimately empty" could often be seen. As Black Death and the great famine swept through the 14th and mid-15th Century, Europe lost about a third of its population. This was the background of "Memento Mori"'s popularity in the early and mid-17th Century. Now, as we stand in unprecedented tim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emento Mori" is a concept that remains valid for us as well.

Looking at the artist's <eee Universe> and <eee Universe dwarf planet study>, I wonder where these heavenly bodies come from. Tcha constantly throws these questions at us: how is our existence is connected? what awareness do we have? Are we the only ones to exist in this universe? And from where do we come from?

*Stanza, as mentioned in the title, is a term that originates from 1200s Arabia, meaning both "line" and "space where essence of poetry gathers". Stanza was used as a metaphor to express the current space we exist in, which aligns between present reality and the next dimension we will exist as and within.

Written by Surim Cheon / Art Critic

Part I

eee Universe / eee 세계관

eee Universe, is the sphere you and I physically and mentally exist in, where we indulge in the physicality of the world we live in; what makes up “us”, the stretch of our imaginations and the limits of our minds.

The eee universe is expressed into three parts.

eee universe

smoking zodiacs

Art framed by function.™

eee universe is a series of studies of the physical landscape that envelopes all life.

Smoking zodiacs is a series of modern day memento mori that explores human mortality, using motifs from history that have trickled down time, such as astrology, Greek mythology, and art history. smoking zodiacs express the stretch of imagination that humans practice to escape ordinary reality.

Art framed by function. is a series of experimental sculptures, where art is framed by function to navigate the complex forms of stale hierarchy and paradigms in fine art and fashion. Art framed by function expresses the malleability of the immediate physicality we encounter in daily life with a mere tweak in thought, conceptualization and actualization.

eee 세계관 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실존하는 공간을 칭한다. 즉, “우리”의 육체, 육체를 담은 공간, 그 공간을 담은 우주, 그리고 실제로 보지 못한 우주를 믿고, 탐구하고, 그리는 우리의 사상과 상상을 모두 통틀어 담아낸다. 이러한 eee세계관의 탐구는 세가지의 시리즈로 나뉘어 진다.

eee universe (eee 세계관)

smoking zodiacs (스모킹 조디악)

Art framed by function. (효율적 구조 속 예술)

eee Universe 는 “생 (生)”을 담은 그릇이다.

Smoking Zodiacs 시리즈는 현대판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로, 인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 낸, 3차원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사상, 철학을 해석적이고 회화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Art framed by function.(효율적 구조 속 예술)은, 순수 미술과 패션을 접목 시켜 현대인에게 적합한 모빌리티가 생동하는 웨어러블한 작품들 (MOBILE & WEARABLE ART)을 창조 함으로써, 접근성이 어려운 순수 미술의 벽을 허물며 미술품에 ‘기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기존의 ‘가치’와 그에 따른 ‘가치의 결정’에 대한 실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일상에 예술과 사상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우리의 현실과 가까운 물질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eee Universe

1. Mother Earth

We humans personify the very world we live in as our “mother”—the woman that conceives, gives birth, raises, and loves us.

2. eee universe – study of galaxies

The physical world around us becomes a concept the moment it is reconceived in our minds. The representation, disposition and scale of this concept changes upon the owner of the mind.

3. Desire

The cyclicity of the Sun and Moon have been symbolic figures in culture and the history that shapes it for all of time. Humans have turned their gaze towards the “heavens” to direct their desires and needs, often unfulfilled in the physical world. The light of the heavenly bodies and the darkness that comes with their absence have represented the desires that humans hold in the third dimension.

eee 세계관

1. 지구를 품은 어머니

인간은 본인을 품은 세상을, 본인을 품고, 낳고, 기르는 ‘어머니’ 라는 대상에 의인화 한다.

2. eee 세계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우리의 뇌리에 들어오는 순간 사상이 되며, 세상의 모습과 성질, 또 그 사상의 크기는 그 사상의 소유자에 의해 자율자재로 바뀐다.

3. 염원 (念願)

“염원” 은 3차원적 것들에서 4차원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기까지 스스로를 불살려 그 험로를 밝혀온 인간의 염원을 그려낸다. 뜨고 지는 cyclicity를 반복하는 해와 달, 밝음과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인간 내면의 자세를 구체적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다.



Mother Earth
지구를 품은 어머니
2022, Oil on canvas, 100×72.5×2.8cm



eee universe dwarf planet study
왜행성(矮行星)
2022, Oil on canvas, 100×65×2.5cm



eee universe planet study 1
eee 세계관 우주 1
2022, Oil on canvas, 100×65×2.5cm



eee universe planet study 2
eee 세세관 우주 2
2022, Oil on canvas, 100×65×2.5cm



Desire (Sunrise)
임흥의 염원
2022, Oil on canvas, 99.5×64.8×3cm



Desire (Sunset)

ilmoo's yeon-won

2022, Oil on canvas, 99.5×64.8×3cm



eee universe
eee 세계관
2022, Oil on canvas, 116×80×2.8cm

smoking zodiacs

Over centuries, the ego of man has obsessed over two ideas: self and life. The obsessions manifested in many ways, one form being astrology: gazing at the stars to find answers about 'myself' and 'my longevity'. While fighting time, and losing the battle every time, mankind has on the other hand obsessed over the immediate gratifications, often which shortens and threatens the very life we hold on to so tightly.

Likewise, the <smoking zodiac> series represents the cognitive dissonance man has regarding life: the irony that dances between the fleeting idealism of hedonistic life and the ever-imminent shadow of death. Each painting of the <smoking zodiac> series depicts a zodiac sign smoking cigarettes. The astrological figure stands solitary on the planet the zodiac sign is ruled by, which represents the foundational ground the figure navigates to know thyself. The cigarettes are a modern day interpretation of "memento mori", latin for "remember you must die", also a symbolic trope that acts as a reminder of the inevitability of death. The reminders of our mortality are ignited and fleetingly put out.

스모킹 조디악

스모킹 조디악 (Smoking Zodiacs)의 세번째 시리즈로, 삶의 비영속성, 그리고 그 속에서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Memento Mori"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類의 해학적인 재해석이다. 메멘토 모리 類의 그림들은 17세기부터 유행해 왔던 Art의 한 흐름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러한 삶의 취약함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들은 그 명쾌한 상징성과 극명한 표현력에 주목하여 해골을 화폭에 담곤 하였지만, 시간을 의미하는 다른 모티프 역시 활용되기도 했다. 시계, 모래시계, 녹아내려 가거나 꺼져가는 초, 그리고 피자마자 지는 꽃과 익자마자 떨어지거나 부패하는 과일이 때로는 각자, 때로는 같이 어우러지며 쇠퇴와 죽음을 직시하는 라퀴엠을 연주하곤 하였다.

eee만의 Memento Mori 속에서는 운명과 자아를 상징하는 각 별자리들이 각자의 행성(이것 역시 별이다)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즉, 각 그림 속에 나타나는 12개의 별자리 상징물들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며, 별자리들이 피우는 담배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 서도 순간의 쾌락에 굴복하는 인간을, 그리고 그 연기는 걸잡을 수 없이 사라지는 무상한 시간을 뜻한다. 불로와 장수를 염원하며 수천 년 전부터 점성술을 통해 운명을 통찰하고 때로는 지배하고 싶어 했지만, 목전의 쾌락에 탐닉하며 단 1초라도 더 붙잡고 싶은 그 귀중한 삶 자체를 단축시키고야 마는 인간의 모순. 이렇게 삶과 죽음은 우리 곁에 나란히 병존하고, 인간은 참을 수 없게 가벼운 모습으로 내재된 모순을 노정한다.



Smoking Aries IV
양자리IV
2022, Oil on canvas, 91×60.5×2.8cm



Smoking Virgo IV

처녀자리 IV

2022, Oil on canvas, 91 × 60.5 × 2.8cm



Smoking Cancer IV
게자리 IV
2022, Oil on canvas, 100×65×2.8cm



전갈자리 IV
Smoking Scorpio IV
2022, Oil on canvas, 100×72.5×3cm



Smoking Sagittarius IV
사수자리 IV
2022, Oil on canvas, 91×60.5×3cm



Smoking Pisces IV
물고기자리 IV
2022, Oil on canvas, 91 × 60.5 × 3cm



Art framed by function.™

eee bridges fine art and fashion by combining formality and function. eee explores the concept of recreating value by upcycling garments and repurposing them into portable frames that carry artwork. Through these sculptural forms that are activated by the wearer eee gives mobility to paintings, taking the artwork out of the white cube space and ubiquitousizing art.

12 curated and tailored vintage Dior jackets frame 12 <smoking zodiacs> paintings.

Like all <smoking zodiacs> paintings, each painting of the <smoking zodiac> series depicts a zodiac sign smoking cigarettes. The astrological figure stands solitary on the planet the zodiac sign is ruled by, which represents the foundational ground the figure navigates to know thyself. The cigarettes are a modern day interpretation of “memento mori”, latin for “remember you must die”, also a symbolic trope that acts as a reminder of the inevitability of death.

This series represents the cognitive dissonance man has regarding life: the irony that dances between the fleeting idealism of hedonistic life and the ever-imminent shadow of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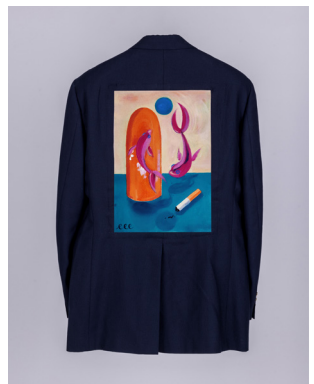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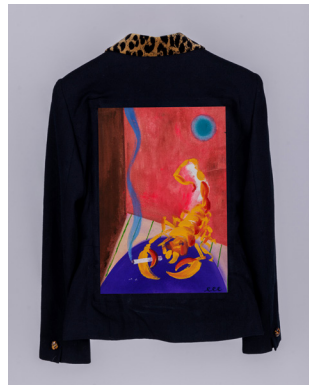
효율적 구조 속 예술

eee는 가치를 한단계 더 높게 재창조 (REPURPOSING VALUE)하고자 하는 작가 ESTELLE TCHA (차경채)의 다양한 협업 및 실험을 담은 프로젝트들을 아우르는 브랜드이다.

eee의 “ART FRAMED BY FUNCTION” (효율적 구조 속 예술)은, 순수 미술과 패션을 접목 시켜 현대인에게 적합한 모바일 아트가 생동하는 웨어러블한 작품들 (MOBILE & WEARABLE ART)을 창조함으로써, 접근성이 어려운 순수 미술의 벽을 허물며 미술품에 ‘기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기존의 ‘가치’와 그에 따른 ‘가치의 결정’에 대한 실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입을 수 있는 기능으로 frame 되는 페인팅들은 기동성 있는 작품이 될까, 아니면 그림이 달린 패션 아이템인 옷이 될까? 그리고 그에 따라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같은 작품이 옷(리폼한 빈티지 Dior 자켓)일 때와 순수 미술 작품(페인팅을 겸비한 3D SCULPTURE)일 때 사람들의 반응과 이끌림,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의 결정 과정을 몇 년간 유심히 지켜봐왔다.

12개의 빈티지 디올 자켓은 각자 <smoking zodiacs> (스모킹 조디악)의 세번째 시리즈를 액자화 한다. <smoking zodiacs> 시리즈는 삶의 비영속성, 그리고 그 속에서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Memento Mori”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類의 해학적인 재해석이다. 메멘토 모리 類의 그림들은 17세기부터 유행해 왔던 Art의 한 흐름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러한 삶의 취약함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들은 그 명쾌한 상징성과 극명한 표현력에 주목하여 해골을 화폭에 담곤 하였지만, 시간을 의미 하는 다른 모티프 역시 활용되기도 했다. 시계, 모래시계, 녹아내려 가거나 꺼져가는 초, 그리고 피자마자 지는 꽃과 익자마자 떨어지거나 부패하는 과일이 때로는 각자, 때로는 같이 어우러지며 쇠퇴와 죽음을 직시하는 라퀴 엠을 연주하곤 하였다.



smoking zodiacs III (12)
스모킹 조디악 III (12)
2021-2022, Acrylic on canvas, 25 x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tailored by eee



ell



smoking aries III
양자리 III
2021,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Monsieur Size 42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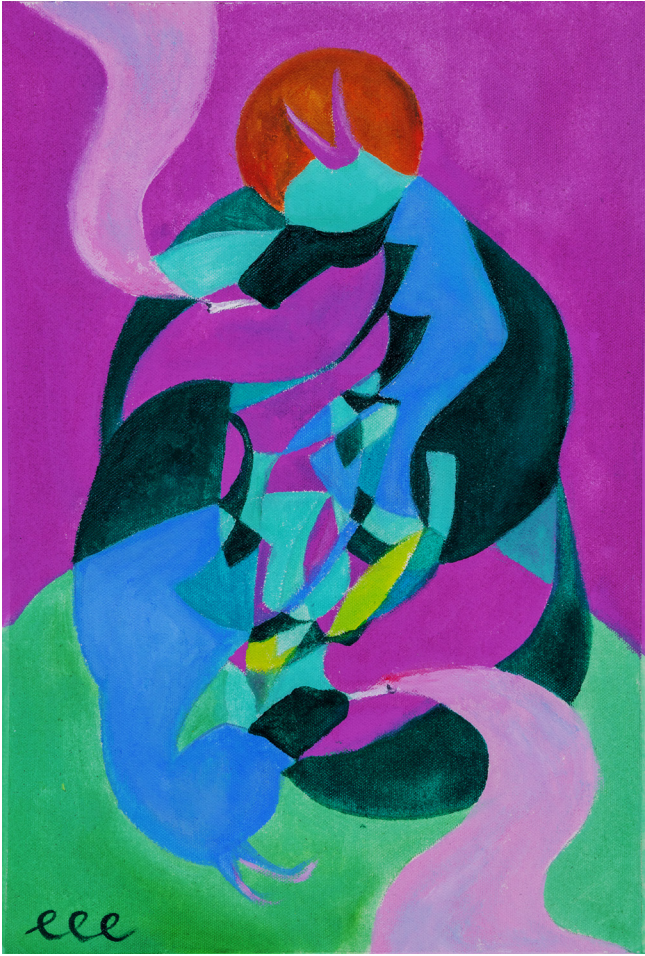
eee



smoking taurus III
황소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Separates Size 10



eee



smoking gemini III
쌍둥이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Size 4



ell



smoking cancer III
계자리 III
2021,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Separates Size 4



eee



smoking leo III
사자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The Suit Size 12



eee



smoking virgo III
치녀자리 III
2021,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Monsieur Size 42



elle



smoking libra III
천칭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Monsieur Size 42



ell



smoking scorio III
전갈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Siz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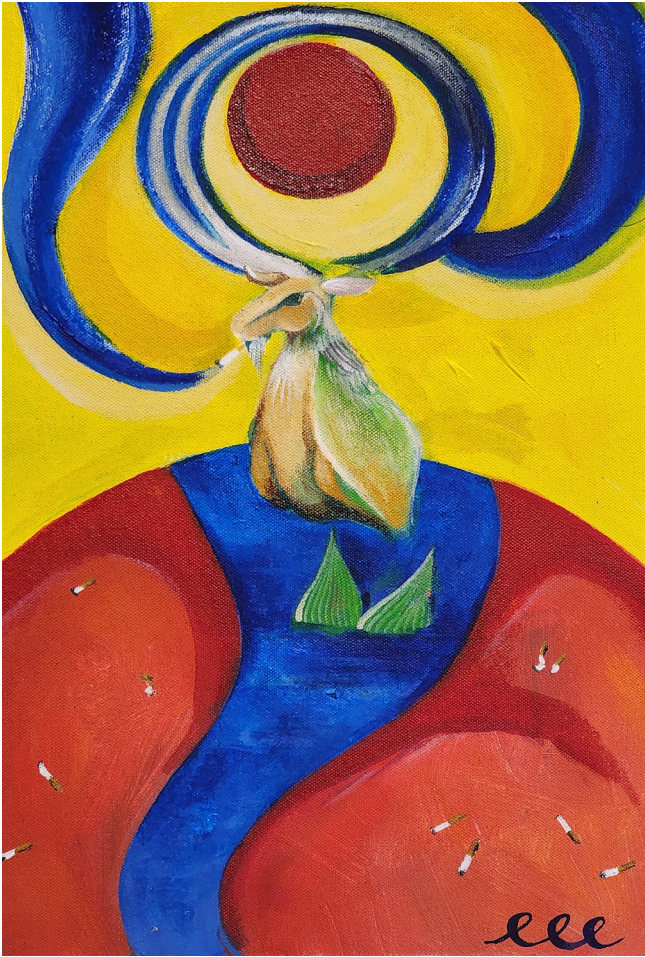
ell



smoking sagittarius III
사수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Monsieur Size 42



ell



smoking capricorn III
염소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Dior Monsieur Size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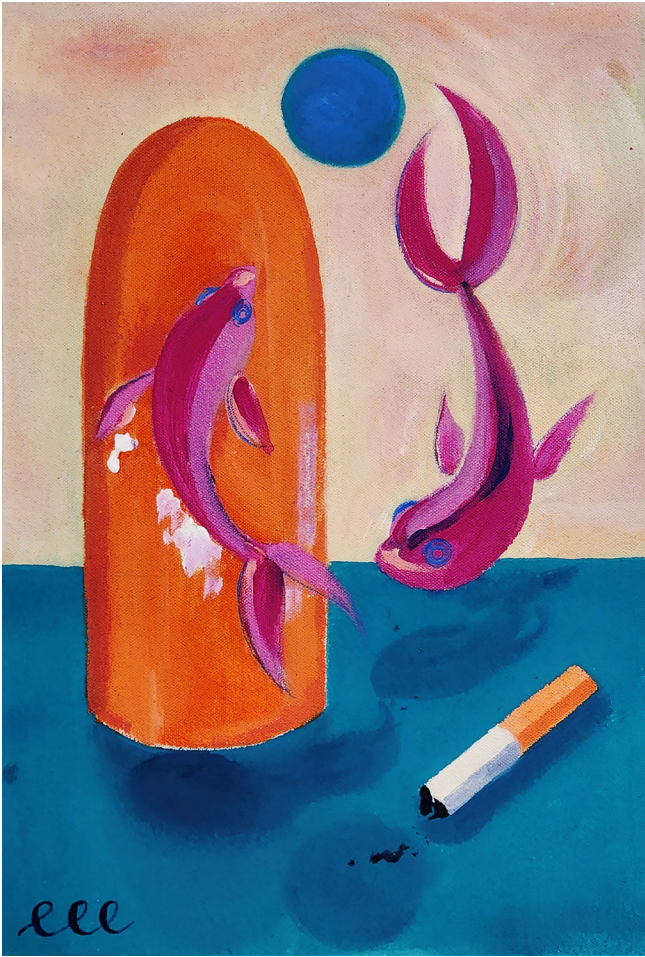
eee



smoking aquarius III
물병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Christian Dior Size 4P



ell



smoking pisces III
물고기자리 III
2022, Acrylic on canvas, 25 × 40cm
framed in Vintage Dior Monsieur Size 42

Part II

Cyclicality

Cyclicality invites you to now leave the physicality we indulge in, transcend the physical and mental sphere, and to explore spiritual discourse; the cyclical patterns in in life and death, fate and energy.

Cyclicality is explored in the three following series.

Cyclicality of Energy
Cyclicality of Life
Cyclicality of Fate
Self Portraits (25)

Cyclicality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실존하는 공간을 떠나 그 이상의 것-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초대한다. 우리의 육체와 공간, 사상과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은 곳에는 어떠한 더 큰 흐름이 존재할까. 이러한 탐구는 세가지의 시리즈로 나뉘어 진다.

기(氣)
윤회 (輪廻) (육마도)
인연(因緣)
자화상(25)

Cyclicity of Energy

기(氣)



CYCLICALITY OF ENERGY (Quadriptych)

기(氣)(4작)

2022, Gesso, charcoal, oil stick, sand, modeling paste on canvas, 194×522×3.8cm

Cyclicity of Energy

Horses are rampaging. Each horse generates powerful energy of its own. This energy whirls around each animated body, filling the space around the horse. Strands of similar energy finds their way to each other, formulating a concentration of energy, a circle. Strands of unique energy break off into currents of their own until they align again.

This journey, too, has an ending. Intensity, too, has dissemination.

Energy of the horse is ready to leave its host.

A young one watches this scene from behind the bushes. The energy can not only be felt, but also seen.

ON ENERGY

Energy in Korean, “Ki” (Chinese character: 氣), holds the meanings of strength, spirit, vigor, air, power. This energy is the slightest tremble in our souls; this energy is the gusts of wind that collapses rooted trees. Energy sweeps throughout all space, including our bodies. Much like the foundation of the “chaos theory”, all energy coexists with, integrates with, and influences each other,.

This energy moves physical objects and beings in the form of air currents, and moves humanity in the form of aligned vigor. Similar strands of energy form a collective, and collectives create culture. Culture creates history, and this invisible dynamism becomes visible with the traces of man’s creations in time. Energy is so powerful that it divides and combines time simultaneously.

Yet, this energy cannot be visibly seen in the reality we live in. Wind can be felt through contact on skin and the ringing of ears. But it cannot be seen.

Whether it is the flapping of a butterfly’s wings, or the gust of a typhoon, energy is seen through the objects and subjects that it moves. To see wind, one needs to observe how the world reacts and moves with its current. The rippling of a horse’s mane and tail, the beads of sweat that fly off of the strands of hair, the dirt that bursts as hooves create impact on the ground... the movement of energy can only be seen through interactions.

When energy is understood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world, the body no longer is a physical limitation, but an extension: a spiritual partner.

ON HORSES

The movement of horses is beautiful.

This may be why mankind named each movement of the horse (“gaits” label each pattern of horses’ leg movements).

During the 6000 years of mankind domesticating horses, horses somewhat maintained their natural instincts and wilderness. Horses adjust their energy to what energy their counterpart exhibits. Horses only show respect and obedience to those with true confidence. In any situation that man’s energy trembles, the horse picks up on it. When respect is lost, obedience is too. Knowing this, mankind has learned to approach horses with confidence to obtain trust.

To cooperate with the most energetic form of life on earth, and overarchingly, to interact seamlessly with the external world, mankind learned to look inwards and strengthen the ego.

With domestication, horses often are known to be lone, individualistic animals. Yet wild horses are social and move in herds. Called a “team”, horses exhibit their energy by dominating the movement of others. Beyond the thousands of years we know of horses coexisting with humans, horses have already been reigning energy.

기(氣)

말 떼가 달려간다. 각각의 말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거대한 무리가 되어 주변 환경을 휘젓기 시작한다. 말을 따라, 말 주위에서, 혹은 말들을 앞서기도 하며 그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비슷한 기류들은 모이고 모여 원으로 뭉쳐진다. 격렬했지만 꿈만 같았던 여정이 끝난 말들은 육체를 떠날 준비를 한다. 중생은 이러한 광경을 넋쿨 속에서 지켜본다. 다만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보인다.

기(氣)에 대하여

기운 기(氣)는 기운, 기백, 공기, 힘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현생에서의 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는 우리 신체 이외의 모든 외부 환경을 거느리기도 하고, 이 큰 힘은 우리의 본질적인 영(靈)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파동되기도 한다. 혼돈이론(카오스 이론)에서의 나비효과와 같이.

이러한 기는 공기의 움직임인 기류의 형태로 물질을 움직이기도 하고, 기운의 형태로 인류를 움직이기도 한다. 같은 기운이 모여 집단이 되고, 그중 같은 기류의 사람들이 모여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인류의 움직임은 곧 역사가 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역동성은 그들에 의해 탄생한 흔적으로 증명된다. 보이지 않는 기가 사람을 움직이고 문화를 구축하고 역사를 창조한다.

나비 날개의 움직임이든 폭풍이든, 기류는 그에 의해 움직이는 물질에 의해 보이게 된다. 보이지 않는 바람은 촉감과 소리로는 느껴진다.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세상 속의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한다. 말들의 휘날리는 갈기, 그 속에서 벗어나와 날아가는 땀방울, 땅에 발굽이 닿는 순간 그 힘으로 흩어지는 모래... 에너지의 움직임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기를 이해 하게 되면, 몸은 제한된 물질 (physical limitation)이 아닌 영의 협력체(spiritual partner)가 된다.

말에 대하여

말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은 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름과 의미를 붙였나 보다.

말은 상대하는 생명(生命)이 보이는 에너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취할 줄 안다. 말들은 자아의 힘이 충만한 자에게만 절제된 존중과 복종을 보여준다. 이것을 익힌 인간은 자신감 있게 말에게 다가서서 믿음을 얻는 법을 배운다. 외부의 힘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 인간은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내면의 힘을 다스리며 6000년 넘게 말을 길들이는 동안에도, 말은 복종이 아닌 협력을 하며 본연의 에너지인 야성을 잃지 않아 왔다.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의 에너지가 무너지면 말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 말이 인간에게 길들여지면서 단독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인식되었지만, 야생마는 무리지어 생활한다. 생존을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말도, 다른 말의 움직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표출한



CYCLICALITY OF ENERGY 1

气(氣)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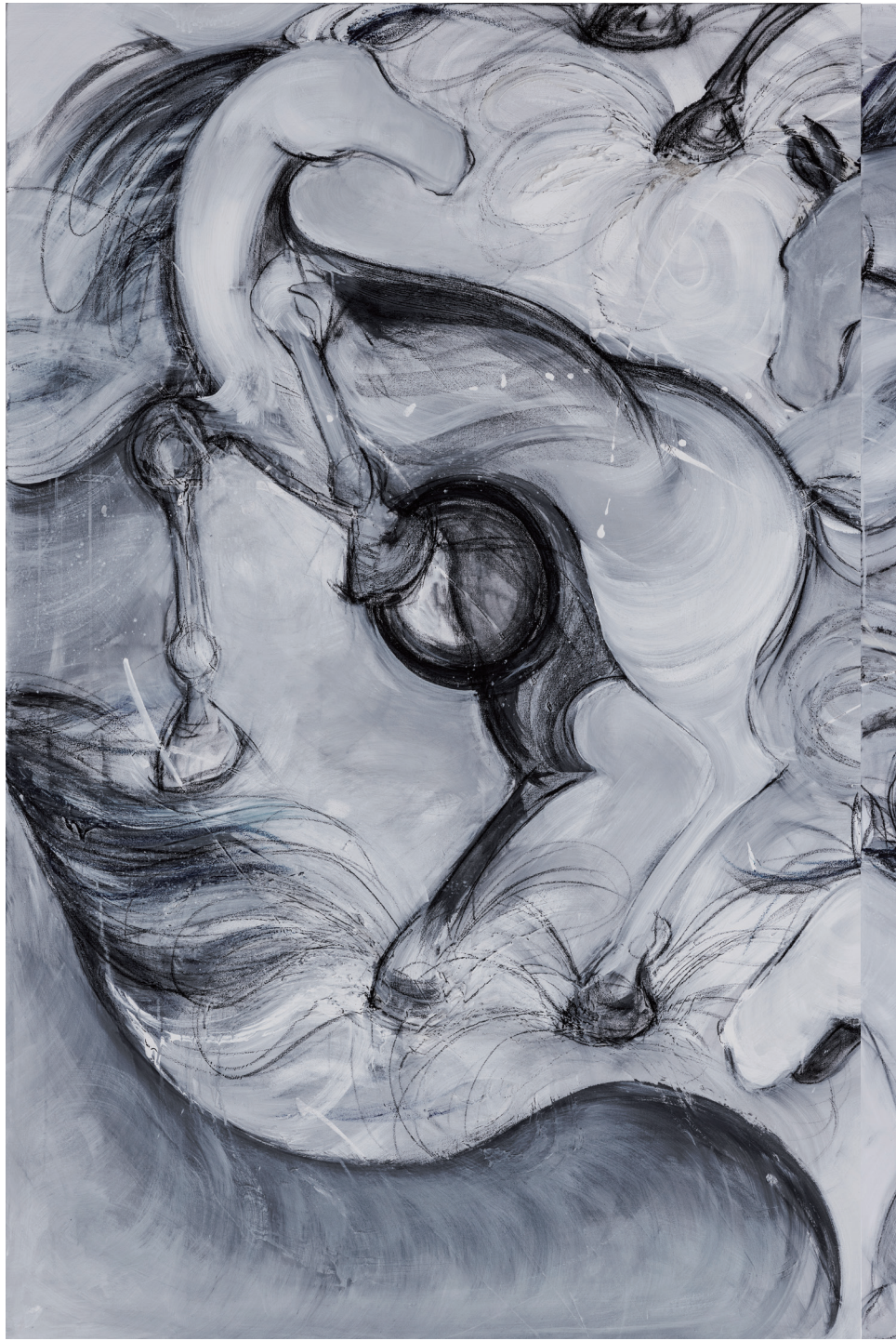
2022, Gesso, charcoal, oil stick, sand, modeling paste on canvas, 194×522×3.8cm



CYCLICALITY OF ENERGY 2

기(氣)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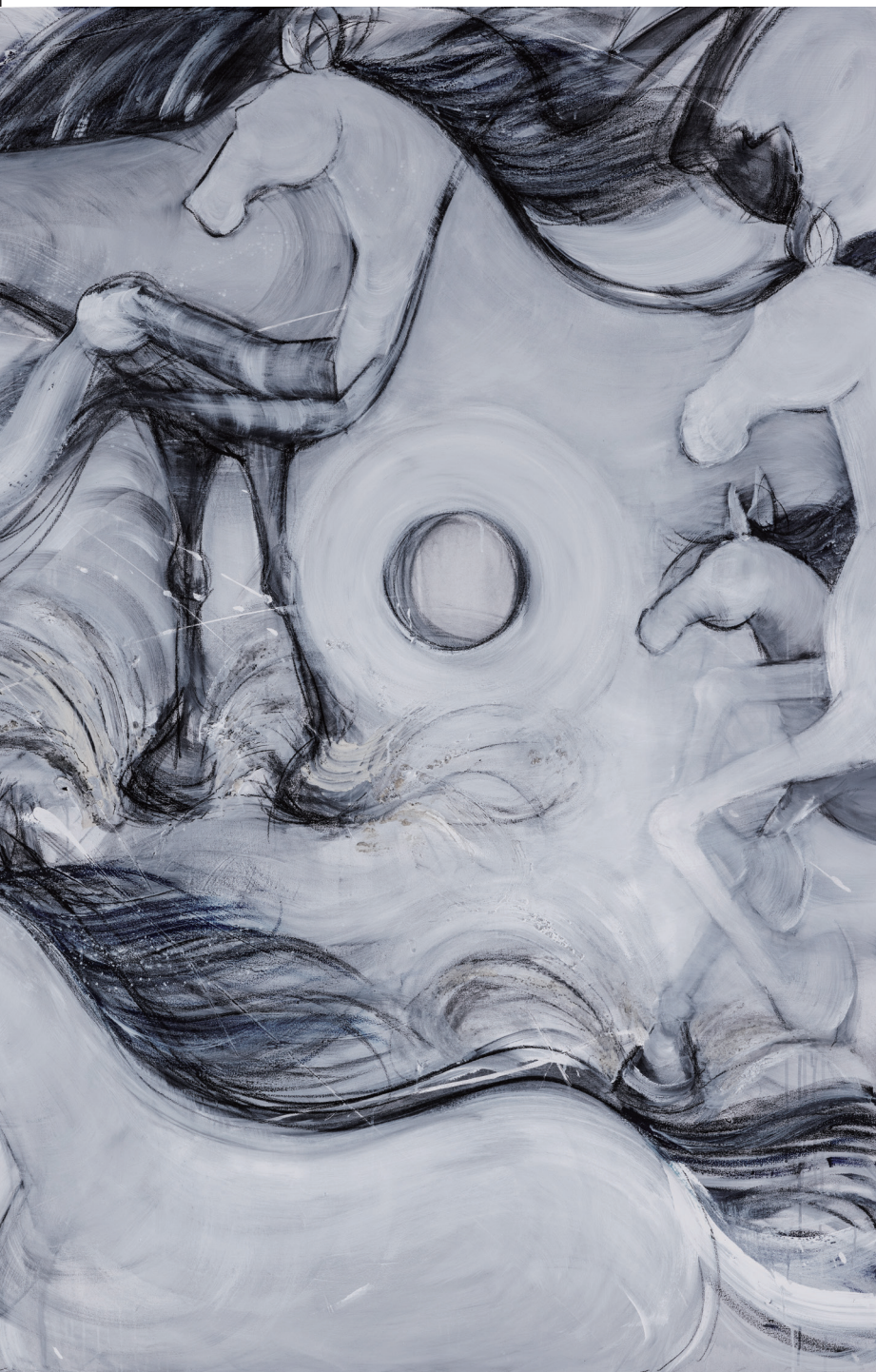
2022, Gesso, charcoal, oil stick, sand, modeling paste on canvas, 194×522×3.8cm



CYCLICALITY OF ENERGY 3

气(氣) 3

2022, Gesso, charcoal, oil stick, sand, modeling paste on canvas, 194×522×3.8cm



CYCLICALITY OF ENERGY 4

기(氣) 4

2022, Gesso, charcoal, oil stick, sand, modeling paste on canvas, 194×522×3.8cm

Cyclicity of Life

윤회 (輪廻) (육마



CYCLICALITY OF LIFE (6)

윤회 (輪廻) (육마도) (6)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Cyclicity of Life

Soul meets physicality. Soul and body experience the physical world, formulating ego, aligning with fate. Collective actions accumulate karma, and when time is up the body returns to the soil as promised. Based on karma, the soul rebirths into a new world, a different time zone. The shape and form of one's life is often smooth, often complex. Experiencing polar opposites—light and dark, full and empty, hot and cold—the soul matures

The formality of creating <Cyclicity of Life> is an ode to the “heart sutra”: “Form is emptiness and the very emptiness is form”. This is expressed through compositional and materialistic choices: the usage and non-usage of paint on canvas, the contrast of white and black, the usage of gesso, the foundation of paintings, and charcoal, the basic material for mark-making.

Each time of rebirth, the soul is born into a blank slate, a new beginning. Yet its fermentation is something beyond the physical world as is its concept of materiality and time; its maturation is made of the repetition of expansion and return—of resuscitation. In the endless plane where the soul matures it endures a cycle with a spectrum so cyclical that the beginning and end loses meaning and value.

The six canvases within the <Cyclicity of Life> series illustrate six lives. These six lives borrow thought from "Samsara", “the cycle of conditioned existence and suffering”, and also to the six ways or realms of reincarnation. Yet the soul's six renderings are not necessarily six different pathways, but six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same world. Through the different world views, a single world is seen and a truth is realized. Form is emptiness and the very emptiness is form it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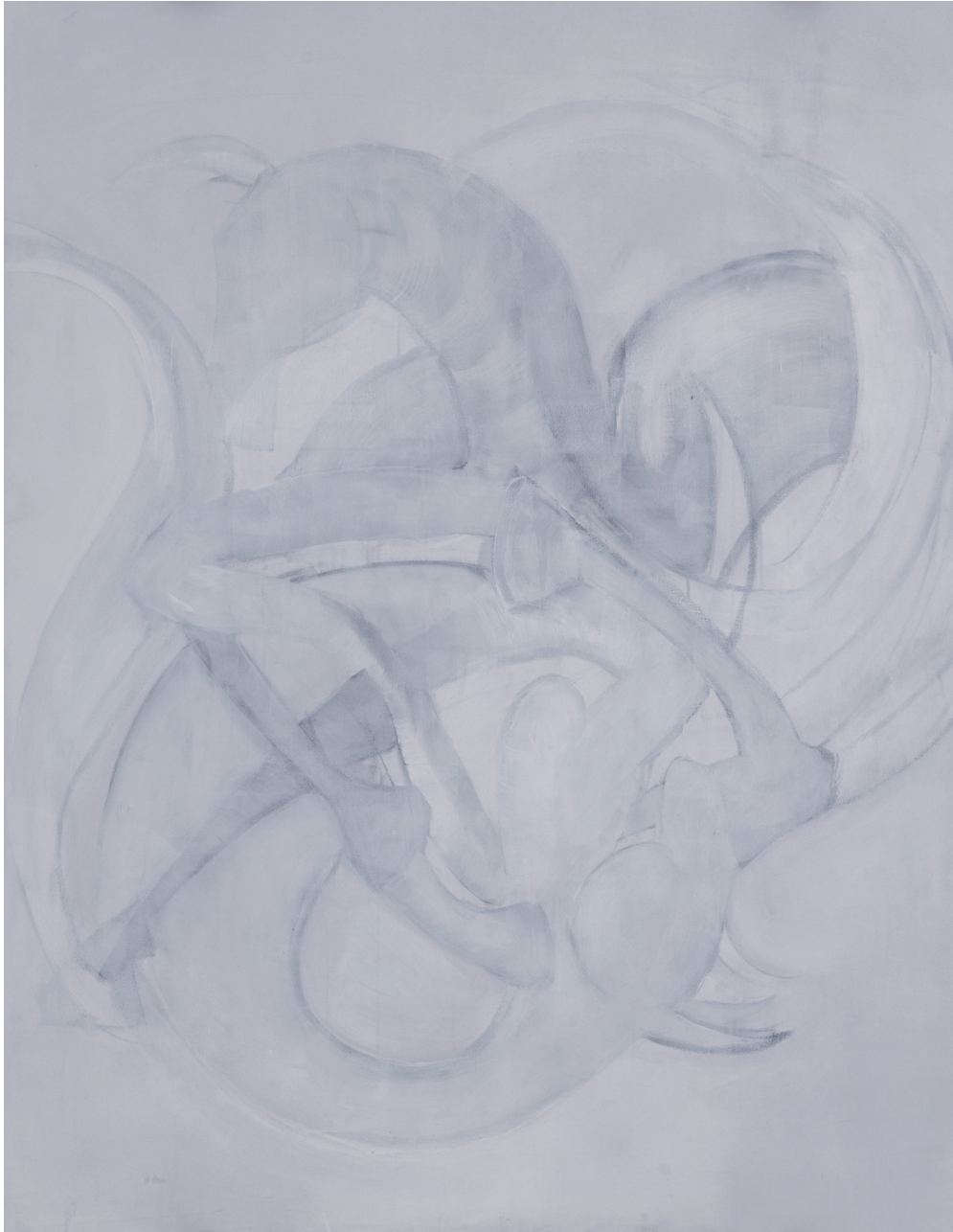
윤회 (輪廻) (육마도)

영혼이 육체를 만나고,
육체는 인연을 만나서,
다시 흩어져 반복하고,
업덕에 의해 사라지다

영혼이 세계를 만나 육체가 생긴다. 영혼과 육체는 색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아도, 인연도 만난다. 삶을 이어가면서 업을 쌓고, 시간을 다해 육체가 약속대로 다시 흩으로 돌아가면서 영혼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차원에서 태어나게 된다. 삶의 형태는 때로는 순탄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양극을 경험하면서 영혼은 더 성숙해 진다. 성숙해지는 영혼은 매번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만 시간과 물질세계를 넘어 확산과 환원을 거듭하며 더욱 숙성한다.

페인트의 유무, 백색과 흑색의 대조, 칠해지지 않은 캔버스와 시작을 알리는 젯소(gesso)의 슝바꼭질 놀이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의미한다. 물질이 곧 비었고 빈 것이 곧 물질이다. 분별심이 없는 지극한 숙성의 세계에서 색과 공의 경계가 또 어디 있을까마는 다만 거기 다다르지 못해 돌고 돌 뿐이다.

나의 그림 속에서 말이 6번 생을 반복한 것은 육도 윤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6번 생을 돌고 돈 영혼의 길은 나눠져 있는 세계가 아닌 각기 다른 세계관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른 세계관 속에서 하나의 세상을 보며 본연의 깨달음을 찾는다. 물질이 곧 비었고 빈 것이 곧 물질이라. 그러나 모든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CYCLICALITY OF LIFE 1
윤회 (輪廻) (육마도) 1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CYCLICALITY OF LIFE 2

윤회 (輪廻) (옥마도) 2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CYCLICALITY OF LIFE 3
윤회 (輪廻) (육마도) 3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CYCLICALITY OF LIFE 4

윤회 (輪廻) (옥마도) 4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CYCLICALITY OF LIFE 5

윤회 (輪廻) (육마도) 5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CYCLICALITY OF LIFE 6

윤희 (輪廻) (육마도) 6

2022, Charcoal and gesso on canvas, 145.5×112×3cm

FATE

인연 (因緣)

FATE

“FATE” in Korean is “In-Yeon”: “In” means “direct reason” and “Yeon” means “indirect reason”. Together, it means “the cause of effects”. The concept of “Nidana” in Buddhism aligns with this, meaning “cause, motivation or occasion”.

The way the word “In-Yeon” is used in present-day Korean culture is closer to the Western definition of “fate”. An inevitable phenomenon, fate is bound to happen. It is often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 with others that were meant to be. A believer of exercising free will, the thought of this inevitable, destined bond somehow ignites an electric current within me.

I fear death.

Fear is what Buddhist practice place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pectrum from “Nirvana”. “Nirvana” is the final goal in Buddhism: a transcendent state where there is no suffering or desire, and no sense of self, where the subject is released from the repetitive cycle of death and rebirth.

My fear of death roots from the thought of these valuable, fateful relationships disappearing into thin air as my life ends. The relations with others coexisting in the world bring experiences to the soul that matures it. Without these relations, and without the fear of losing them, what makes up value in life? What is life alone, unattaining, unfeeling? I have yet to reach the state of full understanding. For now, I settle to understand fate as a primary indicator towards the value of life.

인연 (因緣)

인연은 결과를 낳기 위한 내적인 직접적 원인, 그리고 이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 원인이라는 두가지 “원인”을 담은 말이다. 고타마 붓다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내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설교하며, 인연의 본질인 “원인”을 강조 했다. 연기 (NIDANA)가 바로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인연일 뿐 ‘자성이 없으므로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

반면에 현대 한국어에서 인연을 이야기 할 때는 흔히 삶 속 “운명” 과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나로 맺어지는 연줄과 같은 것도 인연이므로 그것을 거부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의를 읽을 때 현생의 나의 육체 속으로는 전율이 흐른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해탈의 정반대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바로 이러한 인연의 소중함이 삶을 다할 때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질까,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이어지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흘러나와 육체가 젖어드는 것이 바로 그 전율일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해탈 했을 때 육체의 존재 이유는 또 무엇일까. 난 아직 모르겠다. 인연은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직간접적 원인이지 않을까하는 바로 거기에 나는 머물러 있다.



SOULMATES

소울메이트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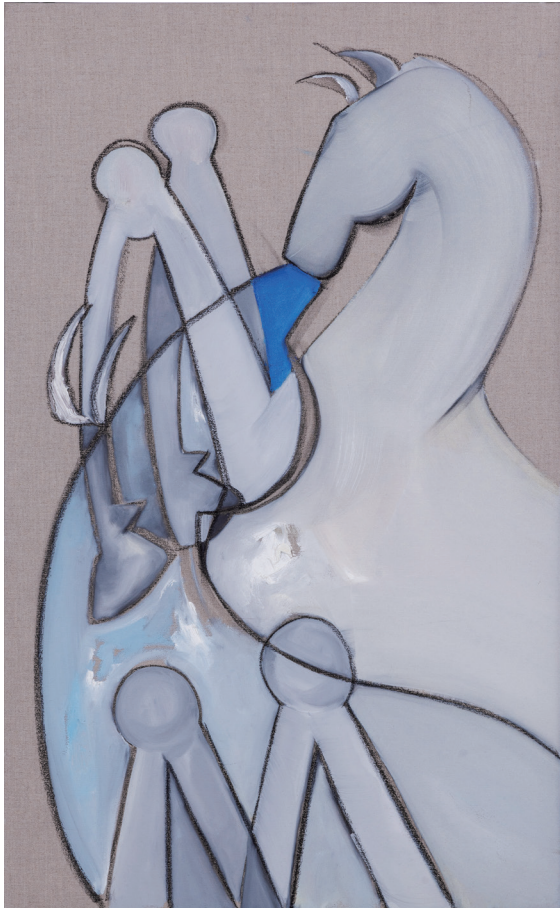
2022, Oil and charcoal on linen, 95×58×2.8cm



CONNECTED

바라보는 인연

2022, Oil, oil stick, and charcoal on linen, 95×58×2.8cm



ELECTRIC
전율이 흐르는 인연
2022, Oil and charcoal on linen, 95×58×2.8cm



SPECIAL
특별한 인연
2022, Oil and charcoal on linen, 95×58×2.8cm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인연
2022, Oil, oil stick and charcoal on linen, 95×58×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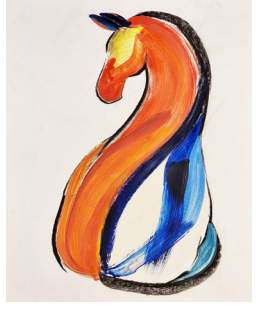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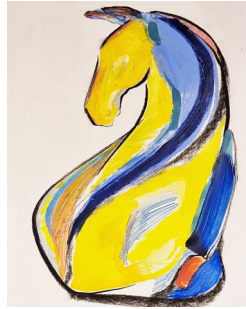
DEEP
깊은 인연
2022, Oil and charcoal on linen, 95×58×2.8cm

Self Portraits (25)

The “self” is a timeless dilemma that remains unresolved. From prehistoric animal totems to Web 3 PFP NFTS, man has tackled the puzzle from various angles throughout time that all come back to the same point of view: avoiding direct confrontation, and instead, utilizing the personification of objects and subjects as navigation tools, and anthropomorphing those that they admire, fear, relate to or empathize with to express and embellish oneself. To this day, rarely are we comfortable exposing our true selves, let alone capable of doing so—physically, mentally, or even philosophically. Yet I wonder: is the essence of all experience that they yield more dimensions of oneself, that reveals and grows the self, constantly morphing it? Perhaps the ever-morphing self is why the quest to find our solid selves is so difficult. The mission of finding the true self is a complex quest we all inevitably participate in: a concept that we all grasp yet cannot obtain, what we are closest to, yet furthest to, fleeting and vulnerable like smoke in the air. Some die without ever confronting their true selves. To confront the self requires a lot of courage and endurance, and may just be the hardest challenge we are born to do.

자화상 (25)

"자아"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영원한 딜레마이다. 원시 시대 동물 토템에서 웹3계 PFP NFT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각도에서 “자아”라는 퍼즐을 풀어 왔는데, 이는 모두 같은 관점으로 되돌아온다. 즉, 인간은 본인의 자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정면돌파를 못하고, 그 대신에 동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연관되어 있거나, 공감하는 사물과 대상에게 의인화를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표현해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경험의 본질은 이러한 “자아”를 숙성 시키고 성장 시켜 조금 더 드러내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아는 전면 하는 매 순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로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일 수도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마주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참여하는 탐색전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것이며,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덧없고 취약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 적인 면들이 자아를 탐구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자아”를 마주하는 것은 용기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다.



Estelle Tcha (b.1993)

EDUCATION

- 2020 - 23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USA
M.A. in Communication, Media and Learning Technologies Design, focus on Game Design
- 2012 - 18 Tufts University, Medford, MA, USA
B.A. in Philosophy, Minor in Communications & Media Studies
- 2012 - 18 The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MA, USA
B.F.A. in Fine Art, Minor in Art History
- 2017 Summer - Parsons Paris, Paris, France
- 2017 Fall - Central Saint Martins, BFA Integrated Semester Abroad, London, United Kingdom

EXHIBITIONS

- 2022 CYCLICALITY, SOUL ART SPACE, Busan, South Korea
- 2021 Shadows, The Stable, S-Chanf, CH
- 2020 eee x SYNC exhibition, Seoul, South Korea
- 2019 Upcycle Social Club, 8Ball Society NYC, New York, NY
- 2018 Central Saint Martins Group Show, London, UK
- 2017 Familiar Patterns, Matter & Light, SoWA Boston, MA
- 2017 Borders, Polykhroma, Boston, MA
- 2012 #leftovers Group Show, SMFA, Boston, MA

<http://eee.studio>

@http.eee.studio

차경채 (b.1993)

학력

- 2020 - 23 컬럼비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러닝테크놀로지디자인 게임 디자인석사
- 2012 - 18 터프츠대학교
철학 전공,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부전공 학사 (BA)
- 2012 - 18 스쿨 오브 뮤지엄 오브 파인아츠
회화 전공, 미술사 부전공 학사 (BFA)
- 2017 여름 파슨스 파리
- 2017 가을 센트럴 세인트마틴스

전시

- 2022 <윤희>,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 2021 <Shadows>, 더 스테이블스, 스칸프, 스위스
- 2020 eee 전시, 싱크인프로세스, 서울, 대한민국
- 2019 업사이클 소셜 클럽, 8볼 소사이어티 NYC, 뉴욕, 미국
- 2018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그룹전, 런던, 영국
- 2017 <Familiar Patterns>, 매터앤라이트, 보스턴, 미국
- 2017 Borders, 폴리크로마, 보스턴, 미국
- 2012 #leftovers 그룹전 SMFA, 보스턴, 미국

<http://eee.studio>

@http.eee.studio

<유회>

차 경 채

2022. 06. 16 - 07. 12

주 최 | 소울아트스페이스

발행인 | 김 선 영

발행일 | 2022년 6월 15일

발행처 | 소울아트스페이스

작품, 글 © 차 경 채

도록 © 소울아트스페이스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YCLICALITY

Estelle Tcha

16 June - 12 July 2022

Organizer | SOUL ART SPACE

Publisher | Sunyoung Kim

Published Date | 15 June, 2022

Publication | SOUL ART SPACE

Works © Estelle Tcha

Catalogue © SOUL ART SPACE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S O U L A R T S P A C E

소울아트스페이스 4809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0
30,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48090, Korea
Tel +82 51 731 5878 Fax +82 51 731 5872 www.soulartspace.com



차경채

윤희

SOUL ART SPACE